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 내용을 토대로 추론한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각 개체는 자기 자신을 오직 다른 개체들 안에서만 발견하고 이해하며 사랑한다. 각 개체의 정신은 오직 다른 개체의 정신들로부터만 자신을 전개한다. 사유와 사랑과 미움도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존재할 뿐이다.

— < 보 기 > —

- ㄱ.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 ㄴ. 홀로 있음은 함께 있음의 변형된 형태일 뿐이다.
- ㄷ.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이다.
- ㄹ. 인간의 사회성은 관념적인 허상에 불과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기나 지혜는 나라의 중요한 덕이다. 전자의 덕은 나라를 용기 있는 나라로 만들며, 후자의 덕은 지혜로운 나라로 만든다. 하지만 절제는 그렇지 못하다. 절제는 음의 조화처럼 서로 다른 음정이 모여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마련된다. …(중략)… 한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는 것은 나라 안에 있는 성향이 다른 세 부류, 즉 통치자, 군인, 생산자가 각각 그들의 지위에 맞는 직분을 수행했을 때이다.

- ① 각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
- ② 모든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평등한 사회
- ③ 모든 정치적 조직·규율·권위가 사라진 사회
- ④ 주권(主權)을 양도받은 군주가 통치하는 사회
- ⑤ 선(善)에 대한 지식을 깨달은 자가 통치하는 사회

3. 그림은 어느 서양 윤리 사상가의 사상을 정리한 노트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제1부
정리 18 :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지만 초월적 원인은 아니다.
정리 26 :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은 신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제2부
정리 44 : 사물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이다.

제4부
정리 68의 증명 : 오직 이성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따라서, ㉠

- ① 덕은 이성을 통해 신의 사랑과 은총을 파악하는 것이다.
- ② 행복이란 정신의 궁극적 단계인 절대정신에 대한 깨달음이다.
- ③ 최고선은 만물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평온함이다.
- ④ 삶의 목적은 필연적으로 정해진 세상을 이성에 의해 개선하는 것이다.
- ⑤ 자유란 이성을 통해 만물에 내재된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4. 갑, 을은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사회 성원들 모두가 각자 자기의 명분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가신(家臣)들이 국정을 농락하거나 대부(大夫)들이 국가의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천자(天子)에 의하여 예악이 만들어지고 정벌(征伐)이 행해져서 도(道)가 행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을 : 절(桀)과 주(紂)가 비록 임금이라 하더라도 폭정을 일삼으며 인의(仁義)를 훼손하였다면, 도적이냐 강도와 같은 이들에 불과하다. 도적이냐 강도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 ① 갑은 도덕적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였다.
- ② 갑은 법치(法治)를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 ③ 을은 인(仁)을 행하는 왕도(王道)를 주장하였다.
- ④ 을은 갑의 신분과 지위에 따른 역할론에 비판적이었다.
- ⑤ 갑은 강제적 수단, 을은 도덕적 교화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다.

2 사회탐구 영역 (윤리)

5. (가), (나)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진리가 냉정하고 적나라하게 그저 객관적으로 자기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 (나) '본질'이란 어떤 것이 원래 '무엇'인가를 의미하며, 그것이 곧 본성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원래 그런 본성이 없다. 인간은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 < 보 기 > —

- ㄱ. (가)는 보편적 이성을 통하여 삶의 본질을 추구한다.
 ㄴ.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우선함을 주장한다.
 ㄷ. (가)는 주관적 체험을, (나)는 객관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ㄹ. (가), (나)는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을'의 주장에 대해 '갑'이 제기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기(氣)는 모든 현실 변화의 근거이기 때문에 감정의 움직임이 기의 움직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理)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四端)을 가리켜 움직일 수 없는 이(理)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을 : 사단(四端)이나 칠정(七情)이 모두 정(情)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사단은 항상 선(善)으로 귀결되고 칠정은 선일 수도 악(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본다면 서로 가리키는 바가 다릅니다.

— < 보 기 > —

- ㄱ. 사단과 칠정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타난다.
 ㄴ. 희노애락이 이미 발한 상태가 정(情)이다.
 ㄷ. 칠정 가운데 선한 면을 가리키는 것이 사단이다.
 ㄹ. 기질(氣質)의 선함과 본연(本然)의 선함은 다른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의 관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는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가장 큰 사회이다. 그러한 국가가 공동선을 중요한 목적으로 추구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개인은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모두 평등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인만이 궁극적 가치를 지니며, 어떤 사람이라도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 보 기 > —

- ㄱ. 개인의 권리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된다.
 ㄴ. 개인이 자기 이익에 대한 최상의 판단자이다.
 ㄷ.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국가의 핵심 이념이다.
 ㄹ. 사회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개인의 권리 보호 여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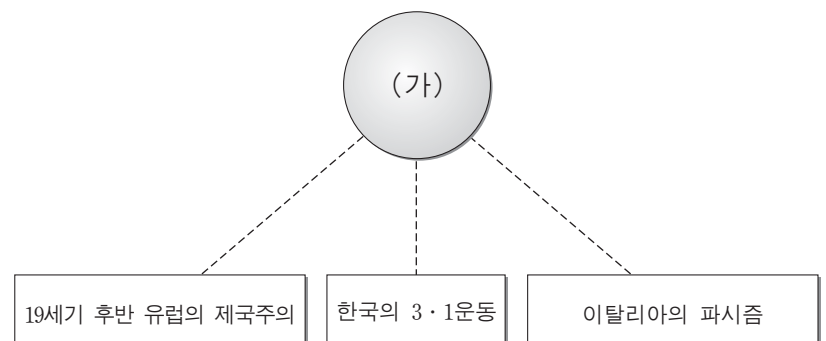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무릇 인간은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뒤에야 먹는 것을 아는데, 먹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뜻[意]이며 또한 행위의 시작이다. 음식 맛의 좋고 나쁨은 반드시 먹어 본 뒤에 알 수 있는데, 어찌 먹어 보기도 전에 먼저 음식 맛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겠는가? ... (중략) ...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효의 이(理)가 있는 것이다.

- ① 인간이 지닌 본성[性]이 곧 이치[理]이다.
 ② 사랑의 이(理)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③ 인간의 마음을 선이나 악으로 규정할 수 없다.
 ④ 인간의 마음은 사물에 내재된 이(理)를 알 수 있다.
 ⑤ 인간의 마음 밖에 이(理)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9. 그림은 (가) 사상이 다양하게 전개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의 사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유 재산제의 철폐를 주장한다.
 ② 사회 구성원의 다원성을 강조한다.
 ③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
 ④ 정치적 공동체의 독립과 발전을 추구한다.
 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

(윤리)

사회탐구 영역

3

10. 다음은 춘추 전국 시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은? [3점]

성인(聖人)은 탐욕하지 않도록 하여 얻기 어려운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며, 배우지 않음을 배우도록 하여 못사람들의 잘못을 회복시키고, 만물이 스스로 그러함을 도와 줄 뿐 감히 작위하지 않는다. …(중략)… 얻음과 잃음 중에 무엇이 더 병이 되는가?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으며, 머무를 곳을 알면 위태롭지 않아, 길이 오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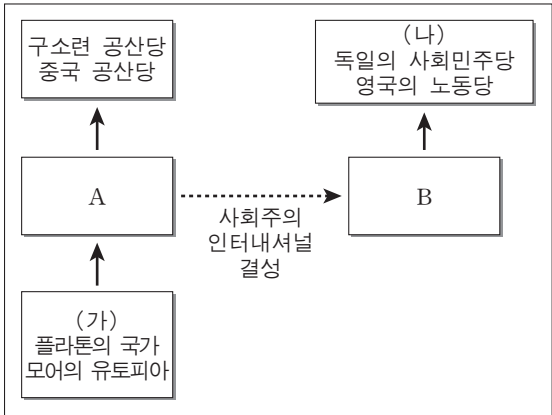
- ① 자연은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다.
- ② 백성은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된 후에 교화된다.
- ③ 인간의 관습적 규범은 자연스런 덕성에서 기인한다.
- ④ 문명적 향락은 인간의 타고난 윤리적 성향을 해친다.
- ⑤ 성인(聖人)은 학문을 통해 자신과 세계의 참모습을 안다.

11.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마음이 업(業)과 상응하여 생사의 괴로움을 불러 모은다면 그런 까닭을 ㉠이라 하고, 업에 얽매임이 다하여 생사의 근심과 번뇌가 없어지면 ㉡이라 한다. 마음의 활동이 늘 덧없는 근심과 번뇌로 휩박받고 힘든 것을 일컬어 ㉢이라 하며, 정도(正道)와 조도(助道) 이 두 가지가 서로 도와 능히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라 한다.

- ① ㉠은 고통에 가득 찬 현실의 삶에 대한 자기인식이다.
- ② ㉢은 괴로움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다.
- ③ ㉣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수행이다.
- ④ ㉡은 ㉠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현상이다.
- ⑤ ㉣은 ㉡을 통해 구현되는 해탈의 경지이다.

12. (가)는 A 사상의 기원이고, (나)는 B 사상을 표방하는 정당들이다. A, B 사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재화의 분배보다 생산을 우선시한다.
- ② A는 정치적 협약을 통한 불평등 문제의 해소를 주장한다.
- ③ B는 국가에 의한 복지 정책보다 자유 경쟁을 중시한다.
- ④ B는 의회주의 방식을 통한 점진적 사회 개혁을 주창한다.
- ⑤ A, B는 모두 사유 재산 제도의 원칙을 부정한다.

13. 예화에서 노예의 태도에 나타나는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느 날 노예에게 몹시 화가 난 주인이 그의 팔을 비틀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예는 “주인님, 마음의 평정을 찾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저의 팔이 부러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더 화가 난 주인이 결국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이 순간에도 그는 평온함을 잃지 않고 “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는 시종일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평온한 정신의 태도를 보였다.

—<보기>—

ㄱ. 의지에 의해 도덕적 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오로지 이성으로 판단하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본다.
ㄷ. 모든 정념에서 벗어나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그림의 갑, 을이 나타내는 입장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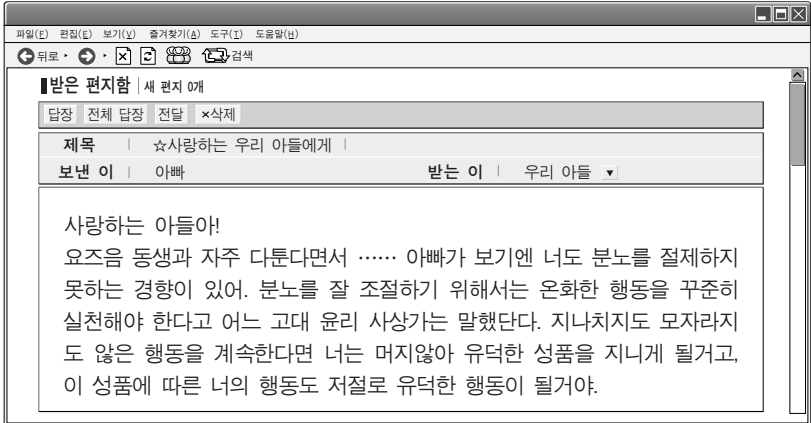
- ① 갑은 도덕 법칙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 ② 갑은 도덕 원리를 인생의 목적인 행복과 일치시키고 있다.
- ③ 을은 참된 삶에서 나온 덕을 실천하고 있다.
- ④ 을은 이성을 행위의 동기나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⑤ 갑, 을은 정언명령에 따라 행위하고 있다.

15. 갑, 을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나에게 그렇게 존재하며, 어떤 것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당신에게는 그렇게 존재한다.
을 : 나는 이제 오직 진리 탐구에 전념하려고 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려 한다. 이렇게 한 후에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내 신념 속에 남아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① 갑은 진리 판단의 기준을 각 개인에게 두었다.
- ② 갑은 유용성을 근거로 진리의 객관성을 주장하였다.
- ③ 을은 자기 존재의 확실성을 주관적 감각에서 찾았다.
- ④ 을은 객관적인 경험 세계를 진리 추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 ⑤ 갑, 을은 의심을 진리 추구의 방법으로 삼았다.

16. 그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전자 우편이다. 아버지의 윤리적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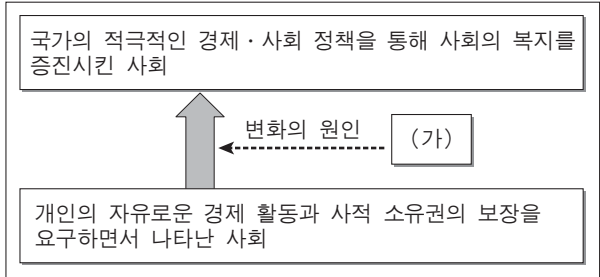
- ① 실천적 지혜 없이 참된 선은 실현될 수 없다.
- ② 행위의 결과가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 ③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경우에는 분노해야 한다.
- ④ 행복은 완전한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 ⑤ 한 번의 유덕한 행위만으로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17. 다음의 수양론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3점]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졌을 때 가련하게 여기는 것 등을 도심(道心)이라 하며, 배고플 때 먹고자 하는 것 등을 인심(人心)이라 한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의 생각이 발동할 때 도심인 줄 알게 되면 곧 이것을 확충시키고, 인심인 줄 알게 되면 잘 살펴서 반드시 도심으로써 절제해야 한다. 인심이 항상 도심의 명령을 듣게 되면 인심도 도심이 될 것이니, 어찌 하늘의 이치(天理)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며, 어찌 인욕(人慾)을 막지 못할 것인가?

- ① 도심이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 ② 인욕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기에 위태롭다.
- ③ 본성을 함양하면서 인욕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 ④ 항상 경(敬)을 보존하여 자신을 절제해 나아간다.
- ⑤ 순선(純善)한 본성인 천리를 바탕으로 인욕을 제거한다.

18. 그림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가)에 들어갈 변화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개인들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②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 ③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 ④ 선거권의 확대로 대중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 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의 조화로 국가의 역할이 감소하였다.

19.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지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은 것은?

수행 평가 문제지

◎ 문제 : 갑과 을의 인성론이 지닌 특성을 논하시오.

갑 : 까마귀를 훈련시키는 자는 깃털을 잘라 버린다. 깃털이 잘린 까마귀는 반드시 사람에게 기대어 먹을 수밖에 없으니, 어찌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저 밝은 군주가 신하를 거느리는 것 또한 이와 같다.

을 : 성(性)이란 다만 호오(好惡)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다. 사슴의 성(性)은 산림을 좋아한다. 불행하게 인간(人家)에서 길러지게 되었다더라도 그 마음은 끝끝내 산림을 좋게 여겨, 한번 산림을 보면 불현듯 선망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것을 일러 성(性)이라고 한다.

◎ 학생 답안

갑은 ㉠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는 직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과 부하를 통솔하기 위한 속수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로 볼 때, 갑은 ㉡ 인간의 선악이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중략) ... 한편 을은 ㉢ 성리학의 정통적인 심성론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를 현실성과 개체적 자율성에 근거하여 파악하였다. 따라서 을은 ㉣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道)에는 본래 한계가 없고 언어에는 본래 항구성이 없는 것이다. ... (중략) ...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므로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올가미는 토끼잡이에 쓰는 도구이므로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를 잊어버리듯이, 언어는 뜻을 표현하는 도구이므로 뜻만 알면 잊어버려야 한다.

- ① 진리는 이론적 탐구의 결과이다.
- ② 유용성은 분별적 지혜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오감(五感)을 통해 얻은 지식은 절대적이다.
- ④ 도(道)는 부분적인 지식의 축적으로 얻어진다.
- ⑤ 큰 지혜는 나를 구속하는 일체(一切)를 잊는 데서 온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